

대학생소비자의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

류미현*

최근 간편성이나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즉석섭취식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즉석섭취식품은 더 이상의 열처리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 때문에 안전이 더욱 중요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즉석섭취식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소비자들의 안전관련 특성과 즉석섭취식품의 안전추구행동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학생소비자들의 실천이 낮은 안전추구행동 영역을 파악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파악하여 각 대상별로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 유도에 필요한 소비자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은 전반적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볼 때 표시 확인행동보다는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볼 때는 유통기한 확인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원산지표시 확인행동 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식품안전정보탐색, 식품안전지식,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를 높이 인식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할수록,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식품안전지식이 높을수록 안전추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학생소비자들은 즉석섭취식품 선택시 안전한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시확인 등에 대한 소비자교육과 또한 식품안전관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및 위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확대 및 기관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주제어: 즉석섭취식품, 식품안전지식, 식품안전 정보탐색, 안전추구행동, 대학생소비자

1. 서론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식품소비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는

* 주저자.

며 또한 무역 국제화로 인해 수입식품이 대량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식품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가공식품이 출현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위해요인들로 인해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식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김효정·김미라, 2011). 식품분야의 전문가들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중독, GM식품, 수입식품을 가장 주의해야 할 위해요인으로 파악하였으며(정기혜 외, 2010), 통계청(2010)의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는 인식을 37.4%의 소비자가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소비자들은 안전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고양되어 있는 반면 구체적인 안전지식이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현정·이재은, 2010).

최근의 식품위해사고의 특징은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광역화되고 있으며,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는 반면 소비자의 섭취로 인해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김인섭, 2007). 그동안 식품 특성상 구매결정시 습관적 구매의사결정과정을 거치고 있었지만 식품안전문제의 빈번한 발생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 증폭에 따라 점차 확장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조유현 외, 2011).

한편 소비자들은 식품선택에 있어 종전의 칼로리 및 영양성 위주에서 건강 지향적인 성향과 함께 이용 시 간편성 및 합리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한국소비자원, 2010) 이러한 간편성이나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즉석섭취식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의 획일적인 식사패턴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식사장소와 메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고(엄문자·류미현, 2002) 식생활이 개인주의화, 소비패턴의 다양화, 편리성 추구경향, 시간가치상승 등으로 인해 간단하고 빠르게 식생활을 해결하고자 하는 추세가 현저하여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정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의 증가로 편의식품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임영숙 외, 2005). 또한 대학의 수업시간이 개인 각각의 식사시간을 반영한 스케줄이 아니므로 일정한 시간이 아니며,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단히 식사대용을 할 수 있는 즉석섭취식품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학교 인근에는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이나 즉석식품 전문점 등 즉석섭취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상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즉석섭취식품류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납품받아 판매되고 대용량상태로 진열·보관 또는 판매장소에서 바로 포장한 후 판매되므로 제품의 품질과 안전관리시 원재료 관리와 생산단계뿐 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의 보관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대형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김우선 외, 2008; 김하규, 2008). 또한 즉석섭취식품은 더 이상의 열처리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 때문에 안전이 더욱 중요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즉석섭취식

품 구매의 안전을 추구하는 행동은 즉석섭취 식품을 식사 또는 간식 등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는 대학생 소비자들에게는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리라 본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식품전체의 안전추구행동(김성숙·이기춘, 1998; 송유진, 2008; 박지연 외, 2009; 김은정 외, 2009; 이영희, 2010; 김규동·이정윤, 2010; 유현정, 2012; 유현정·주소현, 2012b)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안전추구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석섭취식품이란 다른 식품류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즉석섭취식품으로 한정하여 이용빈도가 높은 대학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추구행동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즉석섭취식품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 소비자들의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학생 소비자들의 안전관련 특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즉석섭취식품의 안전추구행동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대학생 소비자들의 실천이 낮은 안전추구행동 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안전추구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 및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 대상별로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 유도에 필요한 소비자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즉석섭취식품

우리나라에서의 즉석섭취식품은 주로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 제품이 너무 다양하며, 이처럼 다양한 제품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형이 분류되어 있지 않고 즉석섭취·편의식품의 명확한 정의가 설정되지 않았으나(정명섭 외, 2005), 2007년 식품공전에 즉석섭취식품의 정의와 유형이 개정, 고시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우리나라의 식품공전에는 즉석섭취, 편의식품류라 함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이 중 즉석섭취식품은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더 이상의 가열조리과정이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즉석섭취식품의 소비실태는 먼저, 김보영(2010)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 소비자의 편의식품 섭취실태에서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자취·기숙사, 친척집 및 하숙집에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라나 외(2007b)의 연구에서 바로먹는 음식의 경우 월평균 2~3회가 가장 많았고, 정라나 외(2007a)의 연구에서 '바로 먹는 음식' 즉 즉석섭취식품의 이용빈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학력은 대졸인 경우, 그리고 직업에서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리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리시간과 노력조차 부담스럽게 느껴 별도

의 조리기술이 필요 없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가정식사 대용식 제품 유형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채미진·배현주(2008)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즉석섭취식품의 1인 1회 평균가격은 5,000원 이하의 경우가, 즉석섭취식품의 구매동기는 ‘편의성’이 가장 많았고 주요 구매시간대는 식사시간대가 많아 소비자들이 즉석섭취식품을 주로 식사대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채미진 외(2008)의 연구에서 대학생소비자들은 즉석섭취식품을 슈퍼마켓이나 대형할인마트의 식품매장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고 편의성의 이유 때문에 주로 구매를 하였다. 이진향(201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즉석섭취식품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즉석섭취식품 평균 구입가격은 3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구매 경험은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도시락, 초밥 순이었다.

선행연구의 즉석섭취식품 소비실태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즉석섭취식품 소비실태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매동기의 경우 즉석섭취식품 특성상 편리함과 간편성의 이유가 많았으며, 평균 구입가격은 5000원 미만이 대부분으로 가격이 높지 않았으며,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거주형태가 자신의 집에서 다니는 경우보다는 그 외 자취, 하숙, 기숙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식사대용과 편리함 등의 이유로 구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식품안전문제

소비자안전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험,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소비자안전은 다양한 위험요인 또는 안전요인으로부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를 말한다(한국소비자원, 2006).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험이 하나도 없는 절대적 안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안전 혹은 소비자안전의 개념을 ‘위험하지만 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양덕순·이기춘, 2002).

WHO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의를 보면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원인을 일으키지 않으며 화학적, 생물학적 인지에 의한 오염을 해결하고 원래의 식품의 특성을 유지할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박명희 외 2011).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발생하는 식품사건이나 식품사고,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더 증가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의 빈도와 심각성이 높아질수록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부와 식품업체의 활동은 활발해지는 반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감소하고 있다(이영희·이승신, 2011). 또한 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품질이 현격하게 저하되어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소비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부패, 변질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식중독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09). 식품안전사고는 식품의 생산·제조·유통과정의 비위생적 환경이나 관련자의 비윤리적 행위 등 전통적 사고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조작 식품의 증가, 바이러스나 세균의 내성강화 등에 전혀 예상

치 못했던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유현정·주소현, 2012a). 식품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00년 납꽃계 사건, GMO위해성 논란, 2004년 불량만두소사건, 표백된 전쌀사건, 2005년 김치 기생충알 사건, 2006년 분유 사카자키균검출사건, 2008년 중국산 멜라민분유사건, 식품이물사고, 2010년 분유벌레검출, 튀김가루 쥐사체 등(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이영희, 2010; 박광희, 2009; 오세라 외, 2012) 계속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 사고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해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트렌드모니터(2011)의 식품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최근 식품 구입 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불안감의 큰 원인이 식품안전 관리의 법적, 제도적 장치 부족 등 이었다. 또한 김효정·김미라(2011)의 연구에 의하면 식품과 관련된 위해 요인인 식중독, 식품첨가물 섭취, 식품 중 잔류 농약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등으로 소비자들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에 상당히 위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결국 소비자들이 식품의 위해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일반소비자들이 갖는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건전한 식품산업 발전에 역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런 현상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유발된 경우가 많다. 그만큼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이나 식품업체에게는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Mossel & Drake, 1990).

유현정(201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소비자들의 경우 새롭게 제기되는 위해물질들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반면, 위해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표시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 아직 한국의 식품시장 및 식품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을 안심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준미·구난숙(2011)의 연구에서는 식품위생의 중요성 인지도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식품위생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중독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소비자도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안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식품안전관련 문제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도 안전 관련 심각성 및 우려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식품 안전사고 대부분은 발생 원인이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나 유통업자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즉석섭취식품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즉석섭취식품 특성상 식중독이나 그 외 많은 위생 및 안전성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즉석섭취식품이 경우 조리시간절약, 간편성이라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간혹은 소비자들이 즉석섭취식품의 안전에 대해 간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석섭취식품관련 위생문제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즉석섭취식품 관련 안전에 대한 태도 형성으로 안전성을 고려한 소비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

소비자의 안전관련 행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안전추구행동, 안전대처행동, 안전전략 등이 있다. 여기서 안전추구행동은 보다 행동 심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추구(seeking)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추구행동은 안전을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해 사고나 사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안전관련 행동이다(김성숙·이기춘, 1998).

즉석섭취식품과 관련된 안전추구행동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식품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김성숙·이기춘(1998)의 연구에서 안전추구행동은 소비자가 구매 전부터 구매 후 사용에 이르는 전 소비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정보탐색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 상품선택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 그리고 상품사용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으로 구성하였고, 송유진(2008)의 연구에서도 식품소비의 안전추구행동을 정보탐색단계의 안전추구행동, 상품선택단계의 안전추구행동,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서울 지역의 소비자들의 안전추구행동은 정보탐색단계나 상품선택단계보다는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2010)의 연구에서도 구매 후 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이 가장 높았고 구매단계, 구매 전 단계 안전추구행동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구매 후 사용 단계 시 식품안전추구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정·주소현(2012b)의 연구에 의하면 식품상태확인행동은 구매 시 유통기한 확인행동이 가장 높았고 식품표시확인행동에서는 식품첨가물행동이 가장 높았으며, 식품위생처리행동은 식힌 후 냉장보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현정(2012)의 한·미 대학생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식품상태 확인행동과 표시 확인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위생처리 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식품안전행동은 식품상태 확인행동이며, 가장 실천율이 떨어지는 행동은 표시확인행동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조희란, 2008; 김규동·이정윤, 2010; 박지연 외, 2009)에 의하면 식품 이용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확인하는 변수는 유통기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은 다른 공산품이나 제품에 비해 변질의 우려가 있고 섭취하는 즉시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가장 많이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대학생의 편의식품에 대한 이경아 외(2010)의 연구에서도 유통기한 확인행동에 대해서는 약 76.1%이상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렌드모니터의 조사(2011)에 의하면 식품 구입 시 주요 고려요인으로는 원산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 외 보관상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도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식품 구입 섭취 시 식품표시 확인하는 소비자는 65%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전체 응답자 중 46.4%가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표시를 확인하였지만 식품표시에 대한 표시내용이 너무 많고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소비자들은 지적하였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1).

또한 즉석섭취식품과 관련하여 채미진 외(2008)의 연구에서는 즉석섭취식품의 선택속성 중 음식이나 제조·판매장소의 위생 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볼 때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안전추구행동은 보통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안전추구행동 중 표시사항 확인행동으로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표시사항 확인행동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표시사항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즉석섭취식품에 대해 안전추구행동으로 표시 확인행동,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 등 두 개의 하위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다음에서는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해보고자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즉석섭취식품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식품 또는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변수 고찰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인구학적특성 및 구매실태에 따른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을 보면, 먼저, 식품대상 안전추구행동을 파악한 이영희(2010)의 연구결과 성별은 남자보다 여자가, 월평균소득에서는 201만원 이상 집단이 200만원 이하의 집단보다 식품안전추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제품을 대상으로 한 오경임·이승신(2012)의 연구에 의하면 제품구매 전 안전추구행동에는 월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월소득 400만원 미만보다 월소득 400만원-6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이 제품 구매 전 안전추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제품 구매 전 안전추구행동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전관련변수에 따른 안전추구행동을 보면 김성숙·이기춘(1998)의 연구결과 농산물에서 독립변수들의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총인과효과를 비교한 결과 안전지향성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유진(2008)의 연구결과 안전지향성이 정보탐색단계 안전추구행동, 상품선택단계안전추구행동, 상품사용단계안전추구행동 등 안전추구행동 하위영역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유진(2008)의 연구결과에서 지각된 제품위험은 정보탐색단계 안전추구행동과 상품선택단계 안전추구행동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2010)의 연구에 의하면 위험요인관련 식품위험인지, 생산·원산지 관련 위험인지, 식품안전정보탐색이 높을수록 안전추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Alba & Hutchinson(1987)은 소비자의 상황에서 지식수준은 제품에 대한 친숙성과 전문지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친숙성은 제품과 관련된 축적된 경험의 수인 반면 전문지식은 제품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어떤 제품이나 상표에 대해서 친숙성이 높아지면 소비자는 그 제품이나 상표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많은 정보를

축적하게 되고 지식의 수준이 증가하게 되어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김인섭, 2007). 실제 연구(김운주·최은희, 2002; 김은정 외, 2009; 이영희, 2010)에서도 식품안전지식과 행동의 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또한 박지연 외(2009)의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인지도에 따른 식품안전행동 차이 분석 결과 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국내 식중독이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비교적 식품안전행동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숙희(2006)등의 연구에 의하면 식품안전사고 발생이후 소비자들의 식품선택 경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식품사고 발생 후 더욱 식품선택을 신중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광희·김혜선(2011)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사고발생 이후 유통일자, 포장상태, 원산지표시 확인, 제조과정의 의심이 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등 평소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개개인의 소비습관을 변화시키거나 추가비용이 소요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식을 높이하고 있다면 또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면 안전추구행동을 높게 할 것이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소비자들의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 수준을 살펴보고,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작성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소비자의 안전관련 특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소비자의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연구문제 3] 대학생소비자의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대학생소비자의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2. 조사도구 및 척도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그 구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석섭취식품 구매실태, 안전관련 변수, 즉석섭취식품 안

전추구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총 46문항이었다.

우선, 사회경제적 변수는 성별, 월평균용돈액, 거주형태이며, 또한 즉석섭취식품 구매실태에 대한 문항으로는 구매횟수, 구매비용, 구매시간, 구매동기, 구매장소 등으로 파악하였다. 구매시간은 식사시간과 간식시간으로 구분하였고 구매동기는 ‘간단히 먹을 수 있어서’, ‘가격이 저렴해서’, ‘식사준비 시간절약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안전관련 변수는 식품안전지식, 식품안전사고 인식, 식품안전지향성, 식품안전정보탐색,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로 하였다. 식품안전지식은 이영희(2010)등의 연구를 기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 HACCP, 유통기간, 조리관련 지식, 식품관련법, 식중독관련 내용 등 식품관련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6문항을 측정하였으며, ‘맞다’, ‘틀리다’, ‘잘모르겠다’ 등으로 답하게 하여 정답에는 1점, 오답과 ‘잘모르겠다’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식품안전사고 인식은 박광희(2009), 김지은(2009), 오세라 외(2012)의 연구를 기초로 그동안 식품관련하여 발생했던 안전사고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7문항을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식품안전지향성은 송유진(2008)의 연구를 기초로 5점 리커트로 총 4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식품안전 정보탐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영희(2010)의 연구를 기초로 인쇄매체, 인터넷, 방송매체, 교육, 인적정보원을 통해 식품에 대해 정보를 탐색하는지에 대한 총 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은 김지은(2009), 김기영(2010)의 연구를 기초로 식재료안전, 원산지신뢰성, 방부제첨가, 유통시신선도 유지, 매장내 보관시 신선도 유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을 지각하는지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총 5문항을 측정하였다. 또한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 변수는 원산지, 음식재료의 신선도, 매장내 위생상태, 유통기한 등에 대해 중요함을 인식하는지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총 4문항을 측정하였다.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은 송유진(2008), 이영희(2010) 등의 연구를 기초로 소비자가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원산지표시, 성분표시, 유통기한, 식품신선함, 판매장소 위생상태, 포장용기 위생상태 등에 대한 확인행동 정도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 총 6문항을 작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항의 신뢰도는 <표 1>에서 Cronbach'a에 의하여 내적일관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식품안전지식 $\alpha=0.602$, 식품안전사고인식 $\alpha=0.784$, 식품안전지향성 $\alpha=0.711$, 식품안전정보탐색 $\alpha=0.782$, 즉석식품안전관련 지각된위험 $\alpha=0.807$,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 $\alpha=0.786$,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 $\alpha=0.813$ 으로 나타났다.

<표 1> 신뢰도

변수	문항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식품안전지식	유전자재조합식품, HACCP, 유통기간, 조리방법, 식품관련법, 식중독	6	.602
식품안전사고인식	납꽃게사건, 불량만두, 표백된 찌뽕, 기생충알 김치사건, 멜라민분유, 생쥐머리이물질, 일본산방사능오염사고	7	.784
식품안전지향성	식품안전관심, 식품안전수준 높일 필요 있음, 다른 나라에 비해 식품안전 수준이 높다고 인식, 가격이 비싸도 안전한 음식 구매	4	.711
식품안전정보탐색	인쇄매체, 인터넷, 방송매체, 교육, 인적정보원	5	.782
즉석섭취식품안전관련 지각된위험	식재료안전, 원산지신뢰성, 방부제첨가, 유통시 신선도 유지, 매장내 보관시 신선도 유지	5	.807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	원산지, 음식재료 신선함, 매장내 위생상태, 유통기한	4	.786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	원산지표시, 성분표시, 유통기한, 식품신선함, 판매장소 위생상태, 포장용기 위생상태	6	.813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소비자들의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경우는 2012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40명의 대학생소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 조사는 2012년 11월 20일 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총 500부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총 44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실증연구 검증 시 SPSS 19.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특성, 즉석섭취식품 구매실태, 안전관련변수,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 파악을 위해 t-검증,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사후 검증으로 DMR검증을 실시하였고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월평균용돈액, 거주형태를 보았다. 성별은 여학생이 65.4%로 남학생 34.6% 보다 더 많았으며, 월평균 용돈액은 21-30만원이 3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1만원 이상 21%, 31-40만원 20.7%, 20만원 이하 16.3%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약 34만원 정도였다. 거주형태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통학하는 경우가 60.5%로 가장 많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48(100)

변수	집단	N(%)
성별	남학생	155(34.6)
	여학생	293(65.4)
월평균용돈액	20만원 이하	100(16.3)
	21-30만원	161(36.0)
	31-40만원	93(20.7)
	41만원 이상	94(21.0)
	평균(표준편차)	34.38(14.92)만원
거주형태	통학	271(60.5)
	자취	106(23.7)
	기숙사	67(15.0)
	하숙	4(.9)

5. 즉석섭취식품 구매실태

즉석섭취식품 구매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즉석섭취식품의 구매횟수(한달), 구매비용(한달), 구매시간, 구매동기, 구매장소 등을 살펴보았다.

즉석섭취식품 구매횟수는 한달 4회 이하가 3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회이상 35.5%, 5-10회 25.7%순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평균 7회 정도 구매를 하였다. 구매비용은 월 2-3만원이 3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만원 이하 37.3%, 4만원 이상 24.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볼 때 3만원 정도였다. 즉석섭취식품의 구매시간은 식사시간이 82.4%였고 간식시간은 17.6%로 나타나 대학생 소비자들에게는 즉석섭취식품이 간식보다는 주식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동기는 ‘간단히 먹을 수 있어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 즉석섭취식품의 구매장소로는 편의점이 56.5%로 가장 높았다.

<표 3> 즉석섭취식품 구매 실태

N(%)=448(100)

변수	집단	N(%)
구매횟수(한달)	4회 이하	174(38.8)
	5-10회	115(25.7)
	10회 이상	159(35.5)
	평균(표준편차)	7.37(6.00)
구매비용(한달)	1만원 이하	167(37.3)
	2-3만원	170(37.9)
	4만원 이상	111(24.8)
	평균(표준편차)	3.11(3.29)
구매시간	식사시간	369(82.4)
	간식시간	79(17.6)

<표 3> 즉석섭취식품 구매 실태(계속)

N(%)=448(100)

변수	집단	N(%)
구매동기	간단히 먹을수 있어서	301(67.2)
	가격이 저렴해서	65(14.5)
	식사준비시간절약 및 기타	82(18.3)
구매장소	편의점	253(56.5)
	즉석식품 전문점	119(26.6)
	학교식당·매점	32(7.1)
	슈퍼마켓·할인점	44(9.8)

IV. 연구결과

1. 안전 관련 특성

대학생들의 안전관련 특성을 크게 식품안전관련 특성과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생소비자들의 식품 안전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지식, 식품안전사고 인식, 식품안전지향성, 식품안전정보탐색 등을 보았다. 식품안전지식은 평균 .63(1점만점)정도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문항 중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며, 안전한 음식조리방법이나 식중독 관련 지식 문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품안전사고 인식은 3.64(5점 만점)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식품안전지향성의 경우 평균 3.34(5점만점)로 보통수준을 보였다. 또한 식품안전정보탐색의 경우 평균 2.91(5점만점)로 보통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원천별로 볼 때 인터넷이나 방송매체에서 주로 식품안전정보탐색을 하고 있었으며, 반면 교육, 인쇄매체를 통한 식품 안전정보탐색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소비자들의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특성으로는 지각된 위험, 안전중요도를 보았다.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은 평균 3.54(5점만점)로 나타났고 하위 문항별로 볼 때 방부제첨가나 식재료안전 등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는 평균 3.70(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통기한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안전관련 특성

변수		문항	평균(표준편차)	
식품안전관련 변수	식품안전지식	유전자재조합식품	.62(.49)	.63(.23)
		HACCP	.61(.49)	
		유통기한	.68(.47)	
		안전한 음식조리방법	.79(.41)	
식품안전기본법		.29(.46)		
식품안전사고 인식	식품안전지향성	식중독	.79(.41)	3.64(.74)
		납꽃게사건	3.45(1.21)	
		불량만두	4.13(1.03)	
		표백된 찌쌀	2.81(1.15)	
		납, 기생충알 김치사건	3.24(1.24)	
		멜라민분유	3.81(1.19)	
생쥐머리이물질		4.09(1.07)		
일본산방사능오염	4.01(.98)			
식품안전 정보탐색	식품안전관련 변수	식품안전관심	3.43(.86)	3.34(.57)
		식품안전수준 높일 필요 있음	3.73(.86)	
		다른나라에 비해 식품안전 수준이 높다고 인식	2.81(.98)	
		가격이 비싸도 안전한 음식 구매	3.39(.91)	
인쇄매체		2.62(.94)	2.91(.63)	
인터넷	3.25(1.04)			
방송매체	3.23(1.05)			
교육	2.41(1.04)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변수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위험	인적정보원	3.04(1.06)	3.54(.69)
		식재료안전	3.62(.91)	
		원산지신뢰성	3.48(.99)	
		방부제첨가	3.76(.99)	
		유통시 신선도 유지	3.55(.98)	
		매장내 보관시 신선도 유지	3.27(.98)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	원산지	2.94(.99)
음식재료 신선함			3.75(.96)	
매장내 위생상태			3.94(.85)	
유통기한			4.17(.98)	

3.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

1)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 수준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수준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볼 때 표시 확인행동보다는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유현정(2012)의 전반적인 식품관련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볼 때는 유통기한 확인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원산지표시 확인행동 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에서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 중 유통기한에 대한 안전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유통기한 확인에 대한 안전추구행동도 높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5>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 수준

변수	문항		평균(표준편차)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	표시 확인행동	원산지표시 확인	2.70(1.14)	3.38(.81)
		성분표시 확인	3.35(1.06)	
		유통기한 확인	4.10(1.01)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	식품신선함 확인	3.60(1.00)	3.72(.78)
		판매장소 위생상태 확인	3.73(.90)	
		포장용기 위생상태 확인	3.81(.88)	
	전체		3.55(.72)	

2) 제변수에 따른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 차이

제 변수에 따른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월평균용돈액, 구매횟수, 구매동기, 식품안전사고 인식, 식품안전지향성, 식품안전정보탐색,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 즉석섭취식품 안전 중요도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안전추구행동이 높았으며, 월평균용돈액이 20-30만원인 경우가 41만원 이상의 경우보다 안전추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횟수의 경우 월 4회 이하가 10회 이상의 경우보다 안전추구 행동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매시간은 식사시간에 구입하는 경우가 간식시간에 구입하는 경우보다 안전추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매동기가 ‘간단히 먹을수 있어서’와 ‘식사준비시간절약 및 기타’의 경우가 안전추구행동이 같게 나타났고 이 두 가지 이유보다 ‘가격이 저렴해서’구입하는 경우가 안전추구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식품안전사고 인식이 상인 경우가 중인경우보다는 안전추구행동이 더 높았고 식품안전지향성이 높을수록, 식품안전정보탐색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위험과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안전추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표시 확인행동에는 성별, 구매동기, 구매장소, 식품안전사고 인식, 식품안전지향성, 식품안전정보탐색,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 즉석섭취식품 안전 중요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표시 확인행동이 높았고 구매시간에서는 간식시간에 구입하는 경우보다는 식사시간에 구입하는 경우 안전추구행동이 더 높았고 구매동기는 ‘가격이 저렴해서’보다는 ‘식사준비 시간절약 및 기타’의 경우 표시확인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매장소의 경우 편의점과 즉석전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 안전추구행동이 같게 나타났고 이 두 곳 보다는 학교식당·매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더 높게 표시 확인행동이 나타났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인식이 중보다는 상인 경우는 표시확인행동이 높았고 식품안전지향성이 상인 경우, 식품안전사고 인식이 상인 경우 중인경우보다는 표시확인 행동이 더 높았고 식품안전지향성이 높을수록, 식품안전정보탐색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과 즉석섭취식품 안전 중요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즉석섭취식품의 표시

확인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에는 성별, 월평균용돈액, 구매동기, 식품안전사고 인식, 식품안전지향성, 식품안전정보탐색,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 즉석섭취식품 안전 중요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이 높았고 월평균용돈액에서는 21-30만원의 경우가 41만원 이상의 경우보다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매동기가 ‘간단히 먹을 수 있어서’와 ‘식사준비시간절약 및 기타’의 경우가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이 같게 나타났고 이 두가지 이유보다 ‘가격이 저렴해서’구입하는 경우가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식품안전사고 인식이 중보다는 상인 경우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이 높았고 식품안전지향성이 상인 경우, 식품안전사고 인식이 상인 경우가 중인경우보다는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이 더 높았고 식품안전지향성이 높을수록, 식품안전정보탐색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즉석섭취식품 안전 중요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즉석섭취식품의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의 경우는 상집단과 중인집단의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이 같게 나타났고 이 두 집단은 하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제 변수에 따른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 차이

변수	집단	표시 확인행동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		전체		
		M	D	M	D	M	D	
사회 인구 학적 변수	성별	남학생	3.202		3.568		3.385	
		여학생	3.488		3.794		3.641	
		t값	-3.620*		-2.965*		-3.615*	
			**		*		**	
	월평균 용돈액	20만원 이하	3.400		3.693	ab	3.547	ab
		21-30만원	3.470		3.830	a	3.650	a
		31-40만원	3.390		3.688	ab	3.539	ab
		41만원 이상	3.238		3.571	b	3.404	b
		F값	1.662		2.352*		2.329*	
	거주형태	통학	3.442		3.752		3.597	
자취·기숙사·하숙		3.309		3.659		3.484		
	t값	1.708		1.250		1.623		

<표 6> 제 변수에 따른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 차이(계속)

변수	집단	표시 확인행동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		전체		
		M	D	M	D	M	D	
구매 실태 변수	구매횟수	4회 이하	3.446		3.776		3.611	a
		5-9회	3.394		3.716		3.555	ab
		10회 이상	3.203		3.537		3.370	b
		F값	2.019		2.106		2.468*	
	구매비용	1만원	3.471		3.737		3.603	
		2-3만원	3.318		3.682		3.500	
		4만원 이상	3.375		3.736		3.556	
		F값	1.552		.254		.869	
	구매시간	식사시간	3.431		3.734		3.582	
		간식시간	3.194		3.633		3.413	
		t값	2.383*		.933		1.888*	
	구매동기	간단히 먹을수 있어서	3.388	ab	3.723	a	3.555	a
가격이 저렴해서		3.225	b	3.471	b	3.349	b	
식사준비시간절약 및 기타		3.524	a	3.882	a	3.703	a	
	F값	2.510*		5.216**		4.434**		
구매장소	편의점	3.351	b	3.662		3.507		
	즉석전문점	3.339	b	3.866		3.602		
	학교식당·매점	3.708	a	3.750		3.729		
	슈퍼마켓·할인매장	3.515	ab	3.591		3.553		
	F값	2.403*		2.296		1.166		
식품 안전 관련 변수	식품안전지식	상	3.480		3.863		3.658	
		중	3.454		3.748		3.614	
		하	3.361		3.675		3.519	
		F값	.183		1.029		.612	
	식품안전사고 인식	상	3.630	a	3.918	a	3.774	a
		중	3.321	b	3.638	b	3.480	b
		하	3.431	ab	3.838	ab	3.634	ab
		F값	4.505**		4.982**		5.5341* *	
	식품안전 지향성	상	3.753	a	3.992	a	3.872	a
		중	3.439	b	3.764	b	3.601	b
		하	2.858	c	3.276	c	3.067	c
		F값	30.094* **		20.487* **		30.652* **	
식품안전정보 탐색	상	3.728	a	4.085	a	3.906	a	
	중	3.433	b	3.716	b	3.574	b	
	하	2.852	c	3.343	c	3.097	c	
	F값	24.604* **		17.303* **		24.894* **		

<표 6> 제 변수에 따른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 차이(계속)

변수		집단	표시 확인행동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		전체	
			M	D	M	D	M	D
즉석 섭취 식품 안전 관련 변수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	상	3.688	a	3.905	a	3.797	a
		중	3.405	b	3.748	a	3.577	b
		하	2.953	c	3.333	b	3.143	c
	F값		15.703*		10.794*		15.792*	
			**		**		**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	상	4.000	a	4.333	a	4.167	a
중		3.468	b	3.762	b	3.616	b	
하		2.667	c	3.087	c	2.877	c	
F값		79.861*		70.236*		95.754*		
		**		**		**		

※ a)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집단구분:상(M+SD), 중(M+SD~M-SD), 하(M-SD)
 *p < .05, **p < .01, ***p < .001

3)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련 변수들의 영향력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안전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상관관계를 보았으며,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변수들간에 0.5수준 이상으로 상관이 높은 변수가 없어 모든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beta=.58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식품안전정보탐색($\beta=.161$), 식품안전지식($\beta=.089$),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beta=.075$)순으로 나타났다. 즉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를 높이 인식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할수록,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식품안전지식이 높을수록 안전추구행동을 높게 하였다.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인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8.1%였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표시 확인행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beta=.538$)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식품안전정보탐색($\beta=.160$),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beta=.093$) 순으로 나타났다.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를 높이 인식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할수록,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표시 확인행동을 높게 하였다. 즉 회귀식의 설명력은 44.0%였다.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beta=.524$)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식품안전정보탐색($\beta=.133$), 식품안전지식($\beta=.099$)순으로 나타났다. 즉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를 높이 인식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할수록, 식품안

전지식이 높을수록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을 높게 하였다.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인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36.8%였다.

<표 7>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련 변수들의 영향력

변수	표시 확인행동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	전체
	B(β)	B(β)	B(β)
식품안전지식	.219(.064)	.326(.099)*	.272(.089)*
식품안전사고인식	-.022(-.020)	-.054(-.051)	-.038(-.039)
식품안전지향성	.074(.052)	.064(.047)	.069(.054)
식품안전정보탐색	.206(.160)***	.164(.133)***	.185(.161)***
즉석섭취식품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	.022(.093)*	.010(.043)	.016(.075)*
즉석섭취식품 안전중요도	.153(.538)***	.143(.524)***	.148(.581)***
R2	.440	.368	.481
상수	.112	1.135	.624
F	57.730***	42.746***	68.051***

※ *p < .05, **p < .01,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소비자들의 안전관련 특성과 즉석섭취식품의 안전추구행동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학생소비자들의 실천이 낮은 안전추구행동 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안전추구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 및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상별로 차별화 된 적절한 소비자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대학생소비자들의 경우 즉석섭취식품은 전체의 82.4%가 식사시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즉석섭취식품은 대학생소비자들에게는 간단한 간식의 의미보다는 한끼 식사를 대신하는 식품인 것으로 월 구매횟수가 평균 7회가 넘으며, 10회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35.5%나 되고 있어 구매가 빈번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매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가 4회 이하보다 구매 시 안전추구행동이 낮게 나온 것을 볼 때 대학생소비자들의 경우 즉석섭취식품을 습관적 구매의사결정에 의해서 별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구매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비록 즉석섭취식품이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자주 구입하는 식품이라도 소비자들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식품이므로 구매의사결정시 신중함을 갖고 구매에 임해야 함을 재차 반복시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즉석섭취식품 구매 시 안전추구행동이 낮게 나타났고 하위영역인 표시 확인행동과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 모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행동을 위한 소비자교육이 집중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즉석섭취식품 구매 시 안전추구행동은 전반적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볼 때 표시 확인행동이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그 중 원산지표시나 성분표시 확인행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원산지표시나 성분표시도 유통기한만큼이나 중요한 표시사항이고 반드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버리는 것이다. 이는 즉석섭취식품 자체가 원산지표시나 성분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만일 있다할 지라도 대학생소비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이해부족일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들 스스로 원산지나 성분표시에 대해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아 안전추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소비자들의 경우 즉석섭취식품선택시 안전한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사항 이해 및 확인행동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생소비자들의 경우 학교교육 중 교양수업 등에서 안전관련 수업이 진행된다면 전반적인 안전추구행동을 높일 수 있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허위적이거나 기만적인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제조자나 유통업자의 경우는 원산지표시나 성분표시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제시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즉석섭취식품 안전 중요성은 구매 시 안전추구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석섭취식품은 최근 그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고 식품 자체는 가격도 높지 않으며, 대학생소비자들은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재가열 없이 먹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민감하며, 또한 보관온도와도 관련이 높아 쉽게 세균 등에 노출되므로 식중독에 민감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소비자들에게 즉석섭취식품의 안전의 중요함을 인식시킴으로서 소비자들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안전추구행동으로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할 것이다. 특히 구매동기에서도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한다’는 경우가 표시 확인행동이나 식품신선 및 위생상태 확인행동이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중요성을 포기하고 안전추구행동을 낮게 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관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식품안전지식과 식품안전관련 정보탐색은 즉석섭취식품 구매 시 안전추구행동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연구결과 대학생소비자들의 경우 식품안전지식 수준이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또한 정보원천별로 식품안전정보탐색 수준을 파악한 결과 보통수준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정보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재정적, 심리적 불확실성 및 위험을 감소시켜 주고 가격이나 품질, 판매점, 제품 등에 대해 알려 줌으로서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허경옥 외, 2008) 소비자들의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을 통해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은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생소비자들의 경우 식품관련 정보탐색을 인터넷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탐색하는 경우가 가장 높지만 실제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이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있어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및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센터의 사이트 등에 대한 홍보가 더욱 확대되어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대학생소비자들이 용이하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방송매체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많은 방송에서 과거에 비해 식품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제공자는 안전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문제 부각이나 자극을 위한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인식이 높은 경우에도 안전추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주로 방송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정확한 판단아래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현정(2012)의 연구에서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관련 사례들의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위해사건들을 보도 중심으로 전달만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추적보도 및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위해에 대한 부정적 기억만이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에 남아있고 이를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보전달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문제인식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방법까지도 자세히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소비들도 식품관련 정보탐색이나 식품안전사고 인식을 할 경우에도 정확한 판단아래 유용한 정보만을 선별하고 독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소비자들의 즉석섭취식품의 구매 시 안전추구행동을 분석하였는데 안전추구행동이 실제 어떤 이유로 각 영역별 안전추구행동을 달리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안전추구행동이 낮은 부분의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즉석섭취식품 안전추구행동은 구매장소에 따라서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구매 장소별 안전관련 특성 파악 및 안전추구행동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소재 대학에 다니는 일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임의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참고문헌

김규동, 이정운. 2010. 주부들의 식품안전 관련 구매행동 및 정보요구도 조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9(3): 392-398.

- 김기영. 2010. 외식소비자의 위험지각이 소비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관광전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2010. 대학생의 식습관과 편의식품 및 영양표시 이용실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숙, 이기춘. 1998.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3): 1-14.
- 김성숙. 2008. 소비자의 농·식품관련 품질 인증표시 이용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1(1): 49-70.
- 김숙희. 2006. 사례분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파동 최소화 및 효율적 위해정보교류방안 연구. 연구 결과보고서.
- 김우선, 정명섭, 최성희, 김용수, 박선오, 박인숙, 김애영, 박연희. 2008. 식품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1-130.
- 김운주, 최은희. 2002. 충북지역 주부의 식품 위생 지식 및 행동 평가. 생활과학연구논총. 5: 45-57.
- 김은정. 2008. On-line상의 소비자 식품 안전정보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 41-50.
- 김은정, 김미라, 김효정. 2009. 경북지역 고등학생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 및 행동 분석. 한국가정 과교육학회지. 21(3): 111-122.
- 김인섭. 2007. 한국과 일본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연구. 14(2): 137-152.
- 김준, 구난숙. 2011. 대전지역 대학생의 식품안전 및 HACCP관심도. 한국생활과학회지. 20(3): 665-675.
- 김지은. 2009. 부산시내 일부 주부들의 식품사고 발생 후 식품의 안전성과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인식 정도.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규, 이학태, 김종호, 이상선. 2008. 즉석섭취 식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 분석. 한국식품위생안전학회지. 23(4): 285-290.
- 김효정, 김미라. 2009. 소비자의 식품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탐색 행동. 동 아시아식생활학회지. 19(1): 116-129.
- 박광희. 2009.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희, 김혜선. 2011.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보. 7(4): 43-66.
- 박명희, 조유현, 이심열. 2011. 식품 정보제공 사이트 분석을 통한 소비자 지향적 식품안전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4(3): 1-21.
- 박지연, 최은희, 최정화, 심상국, 박형수, 박기환, 문혜경, 류경. 2009. 소비자의 식품안전 인지도와 안전 행동평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24(1): 1-11.
- 송유진. 2008. 서울·상해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식품소비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식품공전. <http://www.kfda.go.kr>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식품 등의 표시기준. <http://www.kfda.go.kr>
- 양덕순, 이기춘. 2002.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고려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재검토. 소비자학연구. 13(1): 1-24.
- 엄문자, 류미현. 2002. 외식구매행동에 나타난 소비자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5): 543-550.
- 오경임, 이승신. 2012. 소비자안전 정보탐색에 따른 안전추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50(5): 101-113.
- 오세라, 신원정, 박태균, 김조영, 김호식, 이정호, 황성휘, 하상도. 2012. 주요식품안전사건에 정부와 언론이 사용한 보도용어의 차이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27(3): 203-208.
- 유현정. 2012. 안전에 대한 한·미 대학생 소비자의 태도-행동모형개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8(6): 149-169.
- 유현정, 이재은. 2010. 한·중·미·일 4개국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 국가위기관리학회보. 2(2): 33-51.
- 유현정, 주소현. 2012a.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 및 역량척도 개발연구. 소비자학연구. 23(4): 79-104.
- 유현정, 주소현. 2012b.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체감도가 식품안전지향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모형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4): 49-70.
- 이경아, 조은정, 윤현숙. 2010. 마산·창원지역 대학생의 거주형태에 따른 편의식품 이용실태.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6(3): 279-290.
- 이영희. 2010. 소비자의 국가식품안전정책과 식품업체의 신뢰에 따른 식품안전추구행동.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희, 이승신. 2011. 소비자신뢰와 구매단계별 식품안전추구행동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4(1): 5-26.
- 이진향. 2010. 즉석섭취식품의 소비실태와 HACCP 적용 김밥의 품질관리 기준.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숙, 박혜련, 한귀정. 2005. 일부 남·녀 대학생들의 편의식에 대한 기호도와 식태도에 관한 비교.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1(1): 11-20.
- 정명섭, 노우섭, 이중근, 최성희, 이철수, 박강용, 우희동, 서정화, 김창민, 이동수, 최원형, 신현정. 2005. 규격의 식품 및 즉석섭취편의식품(ready-to-eat)의 위생 강화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1-263.
- 정기혜. 2004.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그 체감도에 따른 행동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라나, 이해영, 양일선. 2007a. 가정식사대용식 제품 유형별 소비자의 선호도, 만족도, 재구매 의사분

- 석. 한국조리과학회지. 23(3): 388-400.
- 정라나, 이해영, 양일선. 2007b. 가정식사대용식 제품 유형별 재구매의도와 소비자태도 구성개념간의 구조적 관련성 검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2(3): 344-351.
- 조유현, 박명희, 손상희. 2011. 식품안전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방향과 사례 프로그램 제작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6): 1167-1184.
- 조희란. 2008. 식품에 대한 불만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미진, 배현주. 2008. 즉석섭취식품 소비자의 구매선호도와 만족도 조사.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4(6): 788-800.
- 채미진, 배현주, 윤지영. 2008. 대학생의 즉석섭취식품 소비실태와 선택속성. 외식경영연구. 11(2): 289-307.
- 트렌드모니터. 2011. 식품안전 관련 인식조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1. 식품표시 확인하는 소비자는 증가하나 표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수준은 낮아. 월간소비자. 10월호.
- 한국소비자원. 2006.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보고서.
- 한국소비자원. 2009. 유통기한 경과 식품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소비자원. 2010.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나물류)의 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허경옥, 김혜선, 김시월, 정순희, 박선영. 2008. 소비자정보론. 서울: 파워북.
- Alba, Joseph W. and John W. Hutchinson. 1987. Dimensions of Consumer Experti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 411-454.
- Mossel, D. A. and D. M. Drake. 1990. Processing Food for Safety and Reassuring the Consumer. *Food Technol.* 44(12): 63-67.

柳美賢: 건국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소비자문제 및 불만족에 따른 대응행동. 1997), 현재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소비자정보학과 교육전임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부 전공분야는 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 등이며, 소비자교육과 정보, 소비자사회와 소비문화 등의 저서와 “대학생들의 웰빙식품 소비행동과 정보요구”, “한국 인터넷쇼핑몰 구매과정에서의 소비자만족도와 재구매의도: 한국거주 중국 유학생소비자 중심으로”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mihyun99@konkuk.ac.kr).

투 고 일: 2013년 03월 05일

수 정 일: 2013년 04월 19일

게재확정일: 2013년 04월 21일

College Student Consumers' Safety Pursuit Behavior at the Purchase of Ready-to-eat Food

Mi Hyun Ryu

To meet the needs of consumers seeking simplicity and ease, a variety of ready-to-eat food circulate and consumers' consumption is also increasing in the meantime. However, safety is becoming more important since ready-to-eat food without further heat treatment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college students', who consuming more ready-to-eat foods, safety seeking behavior when they purchasing.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college student consumers' safety pursuit behavior at the purchase of ready-to-eat food. First of all, the article examines college student consumers' safety-related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safety pursuit behavior regarding ready-to-eat food in detail and suggests how to enhance it by figuring out safety pursuit behavior areas showing low practice by college student consumers. Also, after figuring out variables affecting their safety pursuit behavior, this study intends to use it as foundational data for consumer education needed to induce their ready-to-eat food safety pursuit behavior for each area. Major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ir safety pursuit behavior at the purchase of ready-to-eat food showed an average level, but the level of label-checking behavior was rather lower than that of food freshness and hygiene-checking behavior. Seen from the items separately, expiration date-checking behavior was the highest level, however, place of origin label-checking behavior and so on indicated the lowest level of all. Second, regarding the variables affecting their safety pursuit behavior at the purchase of ready-to-eat food, the importance of ready-to-eat food safety exerted the greatest effect, and the next were search for food safety information, food safety knowledge, and ready-to-eat food safety-related perceived risk in order. In other words, they showed more positive safety pursuit behavior when they perceived the importance of ready-to-eat food safety more, searched for food safety information more actively, showed higher recognition on ready-to-eat food safety-related risks, and had more food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the results, we need the consumer education which ensure college student consumers to check food labels when they purchase ready-to-eat food, also to increase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In order to provide food safety and injury information to consumers actively, political countermeasures should be needed through expanding agencies and public relations for the center.

Key words: ready-to-eat food, food safety knowledge, search for food safety information,

safety pursuit behavior, college student consumers